



홍준봉
프레이션안 강원취재본부 편집국장

탄광은 사라져도 진폐 고통은 남았다

사고로 되살아난 ‘광부’라는 단어

지난 2022년 11월 4일은 잊었던 광부들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준 ‘역사적인 날’이다. 언론에서 ‘봉화의 기적’이라 불리며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박정하 씨의 생환 소식은 당시 ‘이태원 참사’로 비탄에 빠진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됐다.

그는 2004년 폐광된 강원 정선군 사북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수십 년을 근무한 베테랑 광부로서 사북에 거주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승준 정선군수가 안동병원까지 병문안을 오기도 했다. 박정하 씨의 극적인 생환 뉴스에 국민은 열광했고 오랜 시간 잊었던 광부라는 단어가 회자되기도 했다.

그는 장시간 매몰된 후유증으로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몽에 시달리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은 “봉화 아연광산에서 매몰되었다가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생환된 박정하 씨는 잊었던 광부의 기억을 되살려 준 분”이라며 “반드시 살아서 가족 품에 돌아가야 한다는 삶에 대한 열정과 오랜 광산 생활로 얻은 경륜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사라지는 탄광

경제개발 시대의 석탄산업은 정부의 ‘증산정책’과 ‘국민 연료’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1980년대까지 30년 이상 호황기를 누리기도 했으나 석유, 가스에 밀리면서 몰락했다.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 363개 탄광에서 6만여 명의 광부들이 연간 2,400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했으나, 1989년 정부의 석탄

산업합리화정책이 진행되면서 폐광의 회오리가 몰아쳤다. 그 결과 2024년 3월 현재 가동 중인 탄광은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 등 단 2곳에 불과하고 민영탄광은 삼척의 경동탄광 상덕광업소가 유일하다.

광부들의 임금도 세월이 변하면서 많이 인상됐는데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이 2011년 발간한 ‘광노 62년사’에 따르면 1970년 1만 7,331원, 1974년 3만 3,975원, 1978년 12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1983년에는 26만 원으로 올랐지만,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광부 임금 2배 인상’ 공약에도 1988년 광부 임금은 40만 원에 불과했다. 1996년이 되어서야 111만 원, 2004년 21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작업환경 특성상 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탄광업은 연간 수백 명이 숨지거나 5,000명이 넘는 광부들이 부상당하는 등 사건·사고가 잦아 산재보험료율은 전 산업 중 최고였다.



물힌 탄광 산재

1979년은 대한민국 탄광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최악의 참사가 발했던 해이다. 그해 4월 11일 정선 함백광업소에서 화약폭발 사고로 한꺼번에 26명이 숨졌다. 이른바 ‘10·26사태’ 다음날인 10월 27일 문경의 은성광업소 갱내화재 사고로 44명이 몰사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탄광 참사가 발생했지만, 언론에서는 대통령 서거 때문에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 이 때문에 1979년 전국 탄광에서 각종 사고로 221명이 사망하고 2,270명이 중상, 2,87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¹⁾

탄광의 중요 사고는 갱내에서의 가스폭발, 붕락, 출수, 화재, 가스질식, 낙반, 화약폭발, 추락 등 다양하게 발생했다. 특히 국내 최대 직업병으로 알려진 진폐증의 경우 1980년대 말까지 정부와 탄광업주들은 예방과 교육에 무관심했고 산재요양도 받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숨지는 경우도 상당했다. 석탄이나 돌가루가 폐 조직에 쌓이면서 서서히 반흔이 생기고 그로 인해 호흡 곤란이 생기는 진폐증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지만, 폐렴은 합병증에 포함이 안 되어 환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1) <광노 62년사>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2011

생산성에 가려진 진폐의 그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각각 1953년, 1963년에 제정됐지만, 대다수 탄광 막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특히 탄광의 굴진작업과 채탄작업에는 착암기 등을 이용해 뚫을 때나 발파하는 작업에는 반드시 물을 뿌려야 했음에도 대부분 막장에서는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대한진폐협회 관계자는 “진폐환자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던 광부들이 그렇지 못한 광부보다 진폐에 훨씬 더 많이 이환되었다”며 “생산량에 임금이 결정되는 도급제라는 명에로 인해 마스크 등 보호장구도 없이 무리한 작업한 탓”이라고 말했다.

30년 넘게 광부 생활을 한 윤민한 태백시재향군인회장은 “탄광에서 생산을 높이기 위해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칭찬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칭찬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폐에 일찍 걸렸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탄광에서 진폐증 예방교육도 없었지만, 진폐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직업병인지 아무도 몰랐다”라며 “경사진 갱도에 자재를 운반하거나 작업을 할 때 숨이 차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요양 중인 이화석(70) 씨는 경동탄광, 한성광업소, 도계광업소 하청 업체 등에서 26년간 근무하다가 1999년 진폐증과 만성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으로 응급 입원했다.

“1973년 탄광에 입사했는데 당시는 마스크가 없어 타월로 입과 코 위에 두르고 작업을 했다. 착암기로 천공작업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면 마른 천공을 했는데 돌가루가 얼마나 날리는지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였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눈에 석회처럼 하얀 돌가루가 가득 쌓였고 콧구멍에 돌가루가 쌓여 손가락으로 돌가루를 파내야 했다. 당시 돌가루를 마시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돈을 벌기 위해 무모할 정도로 일했다. 나중에 성능이 좋은 방진 마스크가 보급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진폐에 이환된 뒤였다.”

폐광에도 줄지 않는 진폐재해자

대한진폐협회와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 1,498명에 불과했던 연간 진폐심의 숫자가 이듬해 1981년에는 2,379명으로 급증했고, 1988년에는 4,432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4년까지 연간 3,000명대 후반을 기록했던 진폐심의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명대로 감소했다. 또한 진폐

증과 합병증으로 요양을 시작한 광부들은 1980년 254명에서 매년 증가해 1985년 555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에는 매년 300명대에서 1994년에 548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2003년 3월 말 기준 전국 25개 진폐요양병원에 입원한 진폐환자는 2,787명에 달해 탄광 폐광에도 진폐환자는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로부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24년 3월 현재 고령의 진폐환자들이 사망하고 신규 진폐요양환자 역시 감소하면서 진폐요양기관은 16개로 줄어들었고 입원환자도 1,200여 명에 불과하다. 지난 2003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입원 요양 중인 진폐환자는 3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2024년 현재 태백병원 입원환자는 108명에 불과해 당시보다 73% 급감했다. 진폐요양제도가 휴업급여에서 2010년 11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입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입원 요양에 사활을 거는 풍조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겨진 진폐의 고통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에서 근무했던 박종찬 씨는 “1989년부터 시작된 폐광 정책으로 360개가 넘는 탄광들이 폐광됐음에도 한동안 진폐환자는 계속 증가했다”라며 “중산정책으로 국민연료의 보급은 달성했는지 몰라도 광부들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은 정책”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직도 전국에는 수천 명의 진폐환자가 고통받고 있으며 해마다 수천 명의 예비 진폐환자(이직광부)들이 정밀검진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은 숫자는 줄어도 진폐환자들의 발생과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토론했다.

2024년 현재 강원 태백, 정선, 삼척, 영월을 비롯해 전남 화순, 순천, 영남의 문경, 충남 보령, 경기 안산지역에 5,000여 명의 진폐환자와 그보다 훨씬 많은 폐광이직자가 진폐증 예비환자로 대기하고 있다.

한편 2020년 3월부터 본격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가뜩이나 힘든 진폐환자에게 고통을 가중했다. 병상의 진폐환자들은 4년 가까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면회도 금지되고, 외출과 외박도 불가능했다. 태백병원에서 요양 중인 이화석 씨는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숨이 가쁜 환자들이 가족들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 치료와 관리 감독이 더 엄격해져 많은 환자가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했다. 🗨️